

광주전남중기청, 수출지원정책 순회 설명회

중기지방청·광주세관·aT 등 8개 기관 참여 글로벌 성장 지원 7개 사업·1,985억원 투입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3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청을 시작으로 '2020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합동설명회'를 3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12일 밝

혔다. 광주전남중기청은 14일에는 전남장조 경제혁신센터, 15일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찾아가는 합동설명회를 진행하

고, 지자체 및 산업단지 등의 수요가 있을 경우 2월말까지 추가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전남중기청 외에 광주세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광주지식재산센터, 우정청 등 8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기관별 수출지원 담당관이 운영하는 상담창구에서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윈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및 수출 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1,985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지난해 다소 둔화된 중소벤처기업수출 분위기를 전환하여 수출회복세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해 집행할 계획이다. 바우처를 활용한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사업은 금년부터 브랜드 K 선정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혁신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

혁신바우처사업 선정기업에는 최대 1억원까지 수출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7일까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 쇼핑물 입점지원, 자사쇼핑몰 구축·육성, 공동물류 지원, 온라인 전시회 개최 등 전자상거래활용 수출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문환 중기지방청장은 "세계 경기 성장세 둔화, 일본 수출 규제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해외시장진출과 수출 확대에 많은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설 '차례상 물가' 안정세...전통시장 더 저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결과

전통시장 23만972원·대형유통업체 31만7,923원 무·배추 등 채소류 가격 상승, 사과·배 과일류 하락

올해 설 차례상에 오를 성수품 물가가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3만972원, 대형유통업체는 31만7,923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차례상 차림비용 하락세는 전통시장이 1.2%로 대형유통업체 0.3% 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기준,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9개 지역 전통시장 18곳과 대형유통업체 2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통시장의 품목별 가격은 무(136.4%)·배추(67.4%) 등 채소류는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출하량이 늘어난 사과(19.8%)·배(15.4%) 등 과일류와 쌀(3.4%)은 하락했다. aT는 지난 10년간 설 성수품 가격을 분석해 구매지기를 분석한 결과 채소류(배추·무)와 축산물(쇠고기)은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설 당일에서 4일 전을 피해 각각 설 5~7일전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과일(사과·배)은 선물세트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설 8~10일 전에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

명했다. aT는 알뜰장보기 지원을 위해 농산물유통정보 누리집(www.kamis.or.kr)을 통해 '전통 차례상 차림비용'과 '간소화 차례상 차림비용'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직거래장터 등 오프라인 장터 정보는 바로정보 누리집(www.baroinfo.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T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오는 16일에 한 차례 더 설 성수품 구입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aT가 제공하는 알뜰 소비정보를 활용해 합리적인 장보기 계획을 세워 보시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삼성전자, 'CES 2020'서 최고 제품상 싹쓸이

혁신상 46개 포함 등 현장 어워드 198개 수상 성능·합리적 가격 호평

삼성전자가 7일에서 10일까지(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서 미국소비자기술회(CTA)가 수여하는 'CES 혁신상' 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매체들이 선정하는 현장 어워드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CES 혁신상 46개를 포함해 현장 어워드 198개를 수상했다. 특히 9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한 TV 부문에서는 QLED 8K, 마이크로 LED 적용 '더 월(The Wall)', 라이프스타일 TV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QLED 8K는 테크레이터, AVS 포럼, 트러스트 리뷰, 포켓린트, 지디넷 등에서 'CES 최고 제품'으로 선정됐다. 2020년형 QLED 8K는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AI 퀀텀 프로세서'와 화면의 99%까지 활용 가능한 '인피니티 디자인', 8K 화질에 걸맞는 풍성한 서라운드 사운드 등으로 많은 매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TV와 사운드바를 연결해 사용할 때 두 기기의 스피커를 모두 활용해 최적의 사운드를 찾아주는 'Q-심포니(Q-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서 CES 혁신상과 함께 주요 글로벌 매체들이 선정하는 현장 어워드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 /삼성전자 제공

Symphony)' 기능은 CTA가 수여하는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지난해 국내 출시에 이어 북미,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출시 예정인 '더 세로(The Sero)'도 주목을 받았다. 미국의 주요 시사주간지 '타임'을 비롯해 IT 전문매체 리뷰드닷컴, 지디넷, 테크레이터 등이 더 세로를 'CES 최고 제품'으로 선정했다. 더 월은 IT 전문 매체인 지디넷의 'CES 최고의 기술', 포켓린트의 'CES 최고의 제품' 등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과 IT 전문매체 씨넷은 삼성전자의 QLED 8K, 더 세로, 더 월을 나란히 'CES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했다.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패밀리허브' 냉장고가 5년 연속 CTA가 선정하는 혁신상을 받았으며, 새롭게 선보인 '큐브 냉장고' 역시 호평을 받았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삼성전자의 큐브 냉장고 'CES에서 만난 최고의 신제품'과 '최고의 생활가전'에 함께 선정했다.

모바일 부문에서는 새롭게 공개된 '갤럭시 크롬북'과 '갤럭시 S10 라이트', '갤럭시 노트10 라이트'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이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기능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갤럭시 노트10 라이트도 엔가젯의 '최고의 CES 제품', '최고의 모바일' 상을 동시에 수상했으며, 디지털트렌드의 '최고의 CES 기술', 리뷰드닷컴의 'CES 에디터스 초이스' 등을 수상했다. /김용현 기자



농협광주지역본부와 농협광주공판장 128번 중도매인 신화농산과 제주서귀포시축산농협이 최근 제주에서 군남 농산물공급 MOU를 체결했다. /농협광주지역본부

농협광주공판장·서귀포시축산농협 군남 MOU

제주에 고품질 농산물 공급...제주권역 사업확장 최선

농협광주공판장이 제주해군장병에게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한다. 농협광주지역본부는 농협광주공판장 128번 중도매인 신화농산과 서귀포시축산농협이 제주에서 군남 농산물공급 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공판장은 1,500억원의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군남 MOU를 계기로 기존 전남, 전북지역의 공급을 뛰어

넘어 제주권역까지 사업확장을 하기로 했다. 농협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신화농산은 지난해 55억원의 농산물 공급실적과 다양한 거래처 공급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제주해군장병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이번 MOU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한전KDN, 개인정보보호 관리 최고 등급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침해예방 활동 등을 진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된다. 2019년에는 중앙부처 및 지방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약 30%에 불과한 228개 기관만이 만점 100점 중 90점 이상인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한전KDN은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른 연간 개인정보 보호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 업무 효율화 및 연속성을 확보했다. 박성철 사장은 "앞으로도 한전KDN이 보유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삼성전자 세계 18위로 1년새 10계단 ↑

주가 51% 올라 시가총액 118조원 증가

국내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상장 이후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순위(상장지수펀드 제외) 18위로 올라섰다. 이는 지난해 초 28위에서 10계단이 나 수직 상승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작년 1월 2일 2,065억7,000만달러(231조 3,291억원)에서 지난 9일 3천16억 5,000만달러(349조8,293억원)로 950억8,000만달러(118조5,002억 원) 늘었다. 이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3만8,750원에서 5만8,600원으로 51%나 뛰어 올랐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수정주가 기준으로 지난 1975년 6월 11일 상장 이후 약 45년 만의 최고 주가를 기록했다. 이후 10일에는 전 거래일보다 1.54% 오른 5만9,500원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단 하루 만에 경신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1년 새 미국 인텔(26위)을 비롯해 AT&T(22위), 버라이즌(27위) 등을 제치고 이들 업체보다 덩치가 커졌다. 대만 반도체업체 TSMC는 주가 상승에 힘입어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가 작년 초 37위에서 현재 21위로 16계단이나 뛰어올랐지만, 삼성전자보다는 3계단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외국인도 삼성전자 주식을 아낌없이 사들이는 중이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지난 10일(장 마감 기준)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6,268억원어치 수매했고 우선주인 삼성전자우도 269억원 수매수했다.

NH농협생명 전남총국 '보험 신상품 3종' 선포

NH농협생명 전남총국은 새해를 맞아 부담 없는 금액으로 당뇨, 척추, 암을 보장해주는 신상품 3종을 13일 출시한다. 신상품 3종은 당뇨병 보장 당뇨케어 NH건강보험, 척추 노화 대비 허리업NH 척추보험, 5년 동안 암·간경화 진단만 없으면 가입되는 하나만물은NH암보험 등의 맞춤형 상품이다. 13일 상품 출시에 맞춰 전남총국은 전남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관내농협 보험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상품 런칭 상품설명회를 한다. /서미애 기자



NH농협생명 전남총국은 새해를 맞아 부담 없는 금액으로 당뇨, 척추, 암을 보장해주는 신상품 3종을 13일 출시한다. /NH농협생명 전남총국